

국민성장펀드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강화 방안

2026. 4.

금 융 위 원 회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	2
III. 제도개선 의견 수렴	3
IV.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강화 방안	5
1. [민관합동펀드] 민간선구안 적극활용	6
2. [직접투자] 전략적 대규모 · 인내투자	10
3. [저리대출] 생태계 협력 · 상생체계 강화	11
V. 향후 계획	12

I. 추진 배경

- (개요)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기술전쟁에 대응, 대규모 민관합동 자금을 조성해 미래성장동력·생태계 집중지원
 - 첨단기금(5년간 75조원) 등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(5년간 75조원)을 매칭하여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 투입
 - 출범 전부터 40여차례* 간담회·실무회의 및 지방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련한 “중소·혁신기업 투자전”을 구체화
- * 금융위원장·부위원장이 직접 찾아가는 지방설명회 개최, K-엔비디아('26.3월), MAX 얼라이언스('25.12월) 등 사업부처와 공동간담회, 산업계·금융권 실무설명회 등
- (그간의 성과) 첨단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위험도가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

※ [1-3월간 지원실적] 국민성장펀드 약 6.6조원 자금 공급 승인

- ① (신안우이 해상풍력: 3.4조원)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저리지원으로 사업진행 가속화
- ② (울산 차세대이차전지: 0.1조원) 이차전지 차세대 기술인 ‘초고체배터리’ 소재 (황화리튬) 공장 후발국의 ‘가성비’ 공세에 맞선 ‘초격차’ 선점
- ③ (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: 2.5조원) AI 국가대항전의 핵심전장인 초대형 HBM 공장 설비 조기가동('30년→'28년), 2,000억원 규모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
- ④ (리벨리온 증자참여: 0.6조원) AI 반도체 유니콘인 ‘리벨리온’의 전례없는 규모 증자에 직접투자자로 참여하여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및 양산(첨단기금 0.25조원)

- (첨단생태계 조성 필요성) 첨단산업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, 산업생태계 지원과 중소·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선순환될 때 완성
 - 첨단기업 생태계 현장*에서도 국민성장펀드가 ‘메가프로젝트’ 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활력제고에도 많은 관심을 요청
- * VC업계(26.1.22): 국민성장펀드의 후순위 재정보강,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 필요
- 우리 첨단·중소생태계는 성장단계의 대형투자가 막혀 있고 투자자금이 보수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대한 우려 존재

⇒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한 직접 및 간접투자방식 활용방안 마련

II.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

◇ 정책성펀드는 그간 첨단·중소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했으나, 단기·보수적 투자, 회수시장 조성미흡 등의 문제도 존재

- 양호한 수익률, 민간자금 유입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대규모·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에 충분한 지원이 곤란한 측면

□ **(보수적·소규모 지원)** 혁신 첨단기업의 스케일업을 담당하는 운용사들은 혁신성보다는 보수화된 기준*으로 지원대상 선정

* IRR(기간 대비 수익률), 조기 회수중심, 기술력보다는 재무제표 중심의 투자

- 단기성과 극대화를 위해 소규모 자금을 단기간 투자
↳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지원에 부적합

□ **(짧은 시계)** 기존 정책펀드의 존속기간(약 7년*)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'적당히' 성숙한 기업만을 타겟으로 지원

*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은 설립부터 상장까지 평균 13~14년이 소요(VC협회)

- AI, 바이오 등 딥테크 중심의 첨단산업은 기술장벽이 높아 오랜기간 연구·개발해야하는 등 장기인내 투자가 필요

□ **(취약한 회수시장)** 첨단기업에 자금이 물흐르듯 투자 → 회수 →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*의 활성화가 필요

* 초기투자 후 회수지원(세컨더리), M&A 지원,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등

- 소액 신규자금 중심으로 자금지원 ↳ 회수시장 지원 부족으로 근본적 가치상승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성장기업의 동력확보 제한

□ **(경험많은 운용사 중심)** “잘되는 영역”에 “해왔던” 운용사가 투자
↳ 실력은 있지만, 소외되는 산업영역 및 운용사(VC·PE)가 존재

- 연기금·공제회 등 LP의 보수적 태도도 지적(안정적 운용을 위해 검증된 운용사에 의존하고, 회수가능성이 높은 딜 위주)

III. 제도개선 의견 수렴

〔26.3.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-금융위원회 합동간담회 개요〕

- (일시/장소) `26.3.26일,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
 - (주재)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,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
 - (참석) 중소기업·중견기업 및 벤처캐피탈, 사모펀드 운용사, 정책금융기관 등
 - (주요논의)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확대 필요성
- ☞ ‘첨단산업 생태계 지원강화 방안’ 논의 시 첨단산업·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제언을 했으며, 대부분 정책 반영 가능

1] 그동안 정책자금에 잘 흐르지 않던 영역으로 지원

- ①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수요 기업에 대한 균형있는 투자
☞ 규모별 범용펀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‘특정목표 지원’ 펀드 신설(p.9)
- ② 대형 세컨더리 투자 트랙 마련 ☞ 회수시장 지원 펀드 신설(p.7)
- ③ R&D 성공확률은 낮지만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투자할 필요
☞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(p.6)
- ④ 단기적인 IPO 전략에 목매지 않도록 세컨더리·회수지원
☞ 회수시장 지원으로 자금 선순환 구조 마련(p.7)

2] 혁신적 기업의 발굴과 장기·인내자본 공급

- ① 운용사 선정 및 평가기준 개선(IRR 중심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위주평가, 기업의 근본적 가치상승 평가)☞ 반영(p.7~8)
- ② VC, PE 등 민간의 선구안을 존중 ☞ ‘성장기업 발굴협의체’ 구성(p.10)

3] 중소·중견기업의 자금사정에 맞는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

- ① 중견기업이 국가 전략사업인 국민성장펀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
☞ 旣지원 중 + 중소·중견기업 포함 생태계 지원 강화(p.11)
- ② 담보의 비중을 낮추는 등 심사시 일종의 허들 완화 필요
☞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(p.11)
- ③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
☞ 국민성장펀드는 원칙적으로 해외 진출 희망기업도 지원가능

□ **(개요)** 정책성펀드는 재정과 산은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필요한 산업에 자금을 투입(투자)하는 사업

* 예: 뉴딜펀드('21~'22) 재정 1.11조원 투입 + 산은 1.62조원을 투입하여 민간 자금 5.27조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(총 8조원 조성 목표)

- 적은 재정을 투입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산업 금융정책이자, 투자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음
- '18년부터 정부재정(+산은 자체재원)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정책성펀드를 지속 조성해왔음

구분	성장지원펀드	소부장펀드	뉴딜펀드	혁신성장펀드
조성기간	'18~'20년	'20~'21년	'21~'22년	'23~'25년
결성실적	9.9조원	1.3조원	11.8조원	9.3조원
주목적	성장벤처·회수·스케일업	수출통제대응 소부장기업	디지털·그린뉴딜 인프라 지원	혁신산업 성장지원

□ **(성과)** 통상 7~10년의 존속기간으로 투자 후 회수까지 완료된 건의 연간 수익률이 10% 이상으로 양호한 성과를 시현*함

* 아직 기관투자자용 펀드 중 청산까지 완료된 펀드는 없으나, 투자완료된 건 개별 건의 수익률을 환산

- 퓨리오사 AI, 리벨리온 등 유니콘으로 도약한 기업에도 투자하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

□ **(비판)** ①만기가 도래한 '국민참여형'의 절대수익률이 높지 않았고, ②단기 수익성 중심 소규모 투자행태를 보임*에 따른 비판도 존재

* 정책펀드 평균 투자기간 2~5년, 평균 투자금액 50~60억원에 불과

☞ '눈에 띄는 대규모 사업'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'작은규모'로 녹는 인상을 줌

IV.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강화방안

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개요

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
: 5년간 총 50조원+@ (연간 10조원) 공급
(직접투자 15조원*+@, 간접투자(펀드방식) 35조원)**

* 첨단전략산업기금 7.5조원 + 민간금융·연기금 및 산은본체 등 7.5조원

** 첨단전략산업기금 7.5조원 + 민간금융·연기금·산은본체·국민 등 27.5조원

① **민관합동펀드 35조원: 민간전문운용사의 선구안을 적극 활용**

 **'민간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' 지원 (간접투자방식)**

- ① 신규자금뿐만 아니라 회수시장·M&A, 코스닥시장 지원 강화
- ② 초장기기술투자 및 지방첨단산업 지원 등 신규 펀드신설
- ③ 자펀드 운용사 선정·평가기준 혁신을 통한 “선구안” 확보

② **직접투자 15조원: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대규모/인내자본을 공급**

- ① 첨단 중소·성장기업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스케일업 자금제공
- ② 민간의 선구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방식 혁신
- ③ 고위험 프로젝트 등에는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 수행

③ **저리대출: 중소기업 등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, 대·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활성화**

- ① 첨단 중소생태계기업이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프로젝트 조성
- ② 대기업 주도의 상생 프로그램 활성화
- ③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

① (민관합동펀드) 민간전문운용사의 선구안을 적극 활용(간접투자)

- ◇ 다양한 목적의 펀드를 통해 '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' 지원
- ◇ 20여개의 자펀드를 통해 민간 운용사의 전문성 활용 극대화

가. 개요

- 공공자금(재정, 첨단기금 등)을 마중물로 시장의 수요 및 투자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펀드 구성
 - 펀드별로 ①특화된 펀드운용목표 지정을 통해 중소·중견 생태계 구석구석에 자금을 공급하고, ②운용사 선정기준도 개선

【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개요 (총 7.45조원. 연간규모기준, 재정합산)】

첨단 일반펀드	특정기능펀드	초장기기술펀드	프로젝트펀드	국민참여형펀드
2.15조원	1.65조원	0.88조원	2.05조원	0.72조원
· 중소·중견 중심 생태계전반지원 (대중소 운용사 안배)	· 스케일업펀드 · AI 및 반도체 생태계 지원 · M&A 등 지원 · 코스닥펀드 신설 · 지역전용펀드 신설	· 10년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초장기 펀드 (기술스타트업, 딥테크 기업 등)	· 민간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규모 자금 지원 · 사업부처 펀드협력 (바이오·컨텐츠 등)	· 첨단산업 성과 국민과 함께 향유 · 소득공제·후순위 보장 지원

나. 펀드자산 운용방법

⇒ 새로운 영역·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첨단산업 생태계 및 핵심 전략기술을 육성

① 대규모 스케일업과 초장기 프로젝트 지원

- i) “수백억원 이상”의 성장자금을 제공하는 스케일업펀드 및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
- ii) 공공자금을 대거 투입하는 초장기펀드*를 통해 기술장벽이 높은 첨단 딥테크기업을 초기단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 간담회 의견

* 약 77%의 자금을 재정/첨단기금이 부담하여 공공자금의 위험부담 최소화

② 회수시장 지원으로 자금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간담회 의견

- i) 코스닥 상장초기 기업에 집중지원하는 펀드(1,500억원)를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가진 도전기업의 성장을 지원
- ii) M&A를 활용한 중견기업 스케일업과 사업재편 목적의 펀드(3,000억원)도 조성

③ 지방기업에 60%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전용펀드 조성

- i) 지역전용펀드를 매년 2,000억원 이상씩 조성하여 지방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
- ii) 지역전용펀드 운용사 선발시 지방기업 밀착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방소재 운용사에 가점 부여*

*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, 지역기업 성장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역소재 운용사를 지원

- iii)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뒷받침

※ 다른 펀드의 경우에도 지역투자 실적이 높으면 초과이익 발생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보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

다.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

⇒ 피투자기업의 근본적 가치상승을 이끌 운용사 선정

① 스케일업 · 가치상승 · 첨단산업 관련 경험이 많은 운용사에 가점부여

- i) 과거 투자기업의 근본적 가치상승, 추가 성장자금 투입 실적 등 감안
- ii) IRR이 낮더라도 투자기간 중 가치상승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, 투자 이후에 해당기업이 추가로 성장하였는지도 고려 간담회 의견

② 도전, 소형리그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석구석에 자금을 공급

- i) 대형 운용사 위주의 운용이 아닌, 도전·소형 리그를 신설
 - 특히 도전리그(750억원)는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를 선정하여 새로운 시각·새로운 네트워크를 활용

- ii)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되었지만, 역량있는 전문 운용사를 발굴·선정하여 '단한 생태계'를 성과중심 개방적 생태계로 전환

③ 창업경험(실패포함)이 국가적 자산이 되는 시스템을 설계

- i) 첨단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 ☞ 성장·중소 기업·딥테크 등 투자실적, 운용사 팀구성·전문성 평가
- ii) 창업실패 경험은 버려지는 비용에 불과했으나,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운용역의 창업경험(실패)도 심사시 고려
☞ 국가창업시대를 맞아 “실패가 국가적 자산이 되는 구조”를 마련

【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자펀드 상세 운용 계획^{간담회의견}】

구분	자펀드 개수	재정, 첨단기금 및 산은본체(억원)			민간	합계
		재정	첨단기금	산은 본체		
첨단 일반펀드	10	1,300	2,030	5,330	12,840	21,500
도전리그	2	120	120	400	860	1,500
대·중·소형리그	8	1,180	1,910	4,930	11,980	20,000
특정 기능펀드	10	1,200	2,570	3,970	8,760	16,500
스케일업펀드	1	300	600	1,100	3,000	5,000
AI·반도체 생태계	3	400	1,100	1,200	2,300	5,000
M&A 전용펀드	1	180	250	770	1,800	3,000
코스닥펀드	1	120	120	400	860	1,500
지역전용펀드	4	200	500	500	800	2,000
초장기 기술펀드	미정	800	6,000	-	2,000	8,800
프로젝트펀드	제안에 따름	-	4,100	1,200	15,200	20,500
메가프로젝트지원	-	-	3,700	700	12,600	17,000
부처매칭 지원	-	-	400	500	2,600	3,500
국민참여펀드	별도	1,200	300	-	5,700	7,200
합계	20개 이상	4,500	15,000	10,500	44,500	74,500

* 자펀드 개수는 확정된 것이 아닌 참고치 (향후 GP 모집과정에서 변동가능)

참고

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부문 하위펀드별 특성

◇ 정책성펀드를 20여개 이상의 자펀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GP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,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^{간담회 의견}

【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자펀드별 특성】

구분	자펀드	결성규모	주목적투자	주요 특징
첨단 일반펀드	10	21,500		
도전리그	2	1,500	첨단산업 일반 생태계 경쟁력강화 (중소·중견)	- 다양한 리그조성으로 성장단계별 혁신기업 발굴 - 12개 중 난이도 높은 산업(바이오 등) 인센티브* - 도전리그(참신한 시각 반영)
대·중·소형리그	8	20,000		
특정 기능펀드	10	16,500		
스케일업펀드	1	5,000	수백억원대 성장자금 특화 (건당 300억원 이상)	- 경영권 인수(Buy-out), 성장자금, 볼트온 등 다양한 방식 활용
AI·반도체 생태계	3	5,000	AI·반도체생태계	- 차세대 반도체, 핵심 소부장기업 등 지원
M&A 전용펀드	1	3,000	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스케일업	- 자금의 회수→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**
코스닥펀드	1	1,500	Pre-IPO 또는 코스닥상장초기	- 코스닥시장 등 활성화 기대, 코스닥 초기기업 자금난 해소
지역전용펀드	4	2,000	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	- 지방전략산업 등 투자 - 지역 엑셀러레이터와 연계
초장기 기술펀드	미정	8,800	10년이상 초장기투자	- 첨단기금 등 출자비중 매우 높음(77%) -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분야
프로젝트펀드	제안에 따름	20,500	메가프로젝트 부처매칭지원	-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
메가프로젝트지원	-	17,000	민간발굴사업에 첨단기금 매칭	- 민간이 제안한 프로젝트 → 기금운용심의회 심사
부처매칭 지원	-	3,500	부처펀드사업 협력	- 부처별 펀드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금지원 협조
국민참여펀드	별도	7,200	국민공모	- 첨단산업 성과를 국민과 향유(소득공제+후순위)
합계	20개+	74,500		

* 예 : '바이오·백신, 콘텐츠' 산업에 10%이상 추가투자를 제안시 선정과정에서 우대

** (국민성장펀드와 무관하게) 산은이 자체 추진하는 '자금회수펀드'와 함께 투자회수생태계 지원

② [직접투자] 대규모 · 장기투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지원

- ◇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대 대규모 시설·양산자금 공급
- ◇ 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'성장기업발굴협의체' 운영

① 성장단계에 맞는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제공

- 창업자·최대주주의 혁신동기를 보호하는 방식(지분매수권 등)으로 수백억원 규모 이상의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을 직접투자
-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수준의 시설·양산 자금 공급도 적극 검토*

* 직접투자 방식은 간접투자방식에 비해 건당규모가 큰 투자도 가능

② 민간의 선구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방식 혁신

- ① 기업 및 지역 실정에 밝고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*한 시중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제안하는 기업과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

* 지방은행, 지방금융지주 등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제안된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

- ② 민간운용사·관계부처가 유망기업을 추천하여 투자대상을 함께 검토·선정하는 (가칭) '성장기업발굴 협의체' 창구를 추진단에 설치
간담회 의견

* 민간운용사·유관부처 추천 → 워킹그룹 검토(추진단+산은+부처+민간전문가)
→ (필요시) 금융권 협의 → 투심위·기금운용심의회 심의

③ 고위험 프로젝트·인내자본이 필요한 투자에는 재정이 적극 역할

- ①글로벌 선도 도전, ②초격차 유지·확대, ③민간조달이 어려운 정책 목적기업 등에 대해 재정자금(1,500억원)으로 직접 지분투자

④ 직접투자 배분액은 수요에 맞추어 15조원+@로 확대

- 직접투자 15조원은 상한선이 아닌, "최소의 가이드라인"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맞추어 15조원+@ 규모로 탄력적 운영

③ [저리대출 활용] 대·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 추진 및 상생체계화

- ◇ 대·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저리대출 시 상생 프로젝트 체계화(모범사례 발굴)
- ◇ 저리대출이 필요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도 신속히 지원

① 혁신 중소기업 등이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프로젝트 발굴 간담회 의견

- ① (예) 대기업이 주관하여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펀드를 만들거나 SPC를 수립하고, 관련 자본금 출자시 첨단기금 참여
- ② 관련 중소·중견기업, 공급망 기업은 함께 SPC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연구개발, 동반 설비투자 추진

※ 예: 방산업체 A社は 글로벌 항공제조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제공동개발 (Risk Sharing Program)을 검토하고 있음

② 대기업 주도의 상생 프로그램 활성화

- ① (예) 대기업이 대규모 저리대출 시 경감한 금융비용의 일부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명목으로 출연
- ② 이외에 협력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및 무료컨설팅 지원 ☞ 2월 '삼성전자' 사례*를 모범사례로 지속 확산

* 예) 최대 2,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 신설, 국내업체에게 테스트베드 기회 제공 및 협력사 대상 무상경영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

③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간담회 의견

- ①핵심역량(대체불가능성), ②스케일업의 잠재력, ③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신속하게 지원

V. 향후 계획

① (민관합동펀드)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순차 자금모집

- 기관투자자용 펀드를 두 차례(라운드)에 나누어 모집공고: 4 ~ 7월
- 운용사 선정 : 5월 ~ 7월
- 선정된 운용사가 민간자금 모집 및 펀드 결성 : 6월 ~ 12월
- 본격 투자 개시 : 연말 이후~
 - ※ 국민참여형 펀드는 별도 운영계획에 의해 자금모집 및 운용예정
 - ※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투자 제안 및 집행 결정 예정

② (직접투자) 대규모·장기투자 중심으로 연중 투자 집행

- AI 반도체 기업(K-엔비디아)에 대한 전례없는 대규모 투자 집행:
3월말, 총 6,400억원 ⇨ 다른 기업으로 지속 확산
- 고위험프로젝트 등 재정이 역할하는 사업 발굴 및 투자집행 :
3분기 중 개시
-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(가칭)성장기업발굴 협의체 구성: 2분기
 - * 모태펀드 투자기업 등 유망기업과의 공동 IR 등도 추진

③ (저리대출) 중소·중견기업 신속지원 및 상생프로그램 체계화

- 지방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:
4월부터 非메가프로젝트도 수요에 맞추어 속도감있게 집행
 - 지방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일부 간소화
- 중소·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모범 프로젝트 발굴 : 3분기 중